



강승일(한남대)

1. 서론

이미 출판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입문서로 여겨지는 책 *Ancient Mesopotamia: Portrait of a Dead Civilization*에서 저자 오펜하임(A. L. Oppenheim)은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핵심을 '신들을 돌보고 먹이는 것'(the care and feeding of the gods)이라고 규정했다.¹⁾ 그런데 이는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대 근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모두에서 신들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제의들이 날마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A. Leo Oppenheim, *Ancient Mesopotamia: Portrait of a Dead Civiliz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183ff.

거행되었고, 이를 빠짐없이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나무로 조각하여 위에 금과 은 등 각종 귀한 재료들로 치장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먹이고 입혔다.²⁾ 그런데 여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물인 신상이 어떻게 음식을 먹고 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제작된 신상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소위 '입을 여는 의식'이 제일 중요한 제의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는 주변 세계와는 대조적으로 신상을 배척하는 소위 반형상주의적 특징을 지녔으며, 따라서 야훼 하나님의 신상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약성서학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신상과 입을 여는 의식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³⁾ 뒤이어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신상과 관련된 흔적들 및 야훼 하나님의 신상의 존재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 일부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들이 주변 세계의 입을 여는 의식을 잘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그 지식을 자신들의 신학적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레토릭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2) 본 논문에서 말하는 '신상'은 신전이나 중앙 성소에서 제의의 중심이 되는 신의 형상을 말한다. 그 용도나 컨텍스트가 분명하지 않은 인형 또는 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형상 같은 것들(예를 들어 '기둥 여인상'(Judean pillar figurines)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3)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입을 여는 의식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핵심만 간략히 언급한다. 대신에 여기에서는 신상의 개념과 기능에 대하여 좀 더 논하기로 한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입을 여는 의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필자가 준비 중인 또 다른 논문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입을 여는 의식 비교 연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 간략한 연구사

1990년대 이후 소위 프리부르(Fribourg) 학파의 주도 하에 도상학(iconography)적 연구가 구약학계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을 시작하게 된 영향으로 학자들의 고대 근동의 신상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실로 등장하게 된 고대 근동의 신상에 대한 중요한 책이 Neal H. Walls (ed.), *Cult Image and Divine Representation in the Ancient Near East* (Boston: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005)이다. 만들어진 신상이 살아 움직이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드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입을 여는 의식’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산발적인 연구들이 등장했으나,⁴⁾ 구약성서의 ‘입을 여는 의식’은 그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학자들의 주목을 많이 끌지 못했다. 우루티아(B. Urrutia)가 시편 51편과 입을 여는 의식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한 장짜리 노트를 출판한 적이 있고, 후로비츠(V. A. Hurowitz)는 이사야 6장에서 예언자의 입술을 정화하는 내용과 메소포타미아 의식을 비교했으며, 글라조브(G. Glazov)는 예언자들이 입을 여는 것과 입을 닫는 현상을 분석했고, 룬드버그(M. Lundberg)는 예레미야 10장과 입을 여는 의식을 비교하였다.⁵⁾

그러나 신상과 입을 여는 의식은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주제이다. 입을 여는 의식이 있다는 것은 신상이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신상이 있으면 그 신상이 살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4) 아래의 각주 8, 15에 있는 문헌들을 참조하라.

5) Benjamin Urrutia, "Psalm 51 and the 'Opening of the Mouth' Ceremony", *Scripta Hierosolymitana* 28 (1982), 222-223; Victor A. Hurowitz, "Isaiah's Impure Lips and Their Purification in Light of Akkadian Sources", *Hebrew Union College Annual* 60 (1990), 39-89; Gregory Glazov, *The Bridling of the Tongue and the Opening of the Mouth in Biblical Prophec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Marilyn J. Lundberg, "The Mis-Pi Rituals and Incantations and Jeremiah 10:1-16", John Goldingay(ed.), *Uprooting and Planting: Essays on Jeremiah for Leslie Allen* (New York: T & T Clark, 2007), 210-227.

해 주는 어떠한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에서 야훼 신상의 존재 가능성과 구약 성경에 반영된 입을 여는 의식의 잔재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3. 이집트의 신상과 입을 여는 의식

이집트에서는 신을 인간의 모습, 동물의 모습, 인간과 동물을 혼합한 모습,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었다. 마지막의 경우에는 인간의 몸에 동물의 머리를 갖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동물의 몸에 인간의 머리를 가질 수도 있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신전 제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만한 제의용 신상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주로 후대에 신전과 함께 재활용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해 내려온 대부분의 신상들은 왕이나 관리들이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하여 신전이나 성소에 바친 것들이다. 제의용 신상은 다른 신상들과는 달리 그 중요성 때문에 금과 은, 청금석과 같은 각종 귀한 재료들로 만들어졌다.

제의용 신상은 신전의 가장 거룩한 안쪽 성소에 안치되는데, 제사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상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며 하루를 보낸다. 이집트에서 날마다 신을 돌보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로, 신상에게 옷을 입히는 작업만 45단계의 과정을 거칠 정도였다.⁶⁾

평상시에 성소 안에 있는 신상은 주요 축제일이 되면 배 모양으로 된 이동식 성소 위에 놓이고, 제사장들은 이것을 어깨에 걸치고 이집트의 주요 신전들을 순회하게 된다. 평민들은 이때가 되어야 신을 마주하여 궁금한 것을 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기회가 없다면 평민들의 신앙은 공식적인 종교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6) Jan Assmann, *The Search for God in Ancient Egyp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48.

것이다. 물론 신전 안에 안치되어 있는 신상과 축제 때 행진하는 신상은 동일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신상이 신전을 떠나면 신상과 관련된 각종 제의들과 신전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⁷⁾ 결국 하늘에 거주하는 신과 땅에 거주하는 인간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신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야 하는데, 이러한 신과 인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상은 특별한 일련의 제의를 거쳐야 살아있는 신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었는데, 바로 입을 여는 의식이다.

이집트의 입을 여는 의식은 이미 제4왕조 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왕국 시대에 와서는 모두 75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의식의 절차가 무덤 벽화에서 발견된다.⁸⁾ 사제는 미리 제작된 신상의 입과 눈에 각종 도구들을 갖다 댄으로써 신상이 눈을 뜨고 입을 열어 바쳐진 음식을 보고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이집트의 입을 여는 의식은 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떼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과정에 대한 유비로부터 그 개념적 기원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⁹⁾

7) Gay Robins, "Cult Statues in Ancient Egypt", Neal H. Walls(ed.), *Cult Image and Divine Representation in the Ancient Near East* (Boston: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005), 10.

8) 이집트의 입을 여는 의식은 *wpt-r*(입을 나누는 것) 또는 *wn-r*(입을 여는 것)로 불린다. 위의 각주 3에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지면 관계상 입을 여는 의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할 수가 없다. 이집트의 입을 여는 의식에 대한 문헌은 다음을 참조하라. Aylward M. Blackman, "The Rite of Opening the Mouth in Ancient Egypt and Babylonia",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10 (1924), 47-59.; T. J. C. Baly, "Notes on the Ritual of Opening of the Mouth",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16 (1930), 173-186; Eberhard Otto, *Ägyptische Mundöffnungsritual* (Wiesbaden: Harrassowitz, 1960); A. R. Schulman, "The Iconographic Theme: 'The Opening of the Mouth' on Stelae 169-96", *Journal of the American Research Centre in Egypt* 21 (1984-85), 177-196; Ann M. Roth, "The *Psš-ḳf* and the 'Opening of the Mouth' Ceremony: A Ritual of Birth and Rebirth",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78 (1992), 113-147; Idem, "Fingers, Stars, and the Opening of the Mouth: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Nṯrwj* Blades",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79 (1993), 57-79; Idem, "Opening of the Mouth," in Donald B. Redford (ed.), *The Oxford Encyclopedia of Ancient Egyp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605-607.

9) Ann M. Roth, *윳글* (1992), 113-147; Idem, *윳글* (1993), 57-79를 보라.

4. 메소포타미아의 신상과 입을 여는 의식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상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신상을 잘 보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신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간이 신상을 통해 현현하는 신들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것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신상은 이집트에서와 마찬가지로 귀한 목재를 사용하여 만들고, 눈은 보석류를 제공하여 넣었다. 신상에는 왕관과 화려하게 장식된 의복을 입혔으며, 옷을 입지 않고 노출되는 부분은 금으로 덮였다. 신상의 외형은 이집트에서와는 달리 전형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띤다. 어느 신인지는 얼굴이나 신체의 모습보다는 주로 신의 상징물 같은 것으로 구별될 수 있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의 형상은 인간과 동일하게 묘사되기 때문에 신과 인간이 혼동될 수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메소포타미아의 신의 형상들 대부분은 신의 권능을 상징하는 황소의 뿔을 가진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상에게는 하루에 두 번씩, 신전 문을 여는 아침 식사와 문을 닫기 전 저녁 식사가 제공된다. 바쳐지는 음식은 왕에게 드려지는 식사의 수준에 준하여 준비된다. 그리고 신에게 바쳐진 음식들은 나중에 왕에게 가져와서 왕이 먹게 된다.¹⁰⁾ 신께 바쳐졌던 음식은 신의 축복이 왕에게 전달되는 일종의 축복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¹¹⁾

이렇듯 신상은 메소포타미아의 제의의 핵심 요소였는데, 신상이 제의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기원전 23세기의 나람신이 스스로를 신으로 칭하고 예배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었다는 주

10) 왕 이외에 제사장들도 신에게 바쳐진 특정 제사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들도 있다. W. G. Lambert, "Donations of Food and Drink to the Gods in Ancient Mesopotamia," in J. Quaegebeur, ed., *Ritual and Sacrifice in the Ancient Near East* (Leuven: Uitgeverij Peeters, 1993), 200.

11) A. Leo Oppenheim, *윳글*, 189.

장이 있다.¹²⁾ 신격화된 눈에 보이는 왕에 대한 예배가 신들에 대한 예배를 대체하거나 사람들의 신들에 대한 경외심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겨지듯이 신들이 하늘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신화적 진술이나 상상력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이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신상을 땅에 있는 신의 실체로 받아들였다.¹³⁾ 그들은 신상이 살아있다고 여겼거나 아니면 적어도 신이 신상을 통하여 현존한다고 믿었다. 이는 사람들이 신에게 바치는 자신의 기도를 점토판에 적어 신상 앞에 가져다 두곤 했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¹⁴⁾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상이 실제 신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을 여는 의식을 거쳐야 했다.

메소포타미아의 입을 여는 의식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크게 보아서 첫 날에는 입을 씻는 의식, 둘째 날에는 입을 여는 의식과 신전으로 신상을 가져가 놓는 의식으로 이루어진다.¹⁵⁾ 장인의 공장에서 만

들어진 신상은 복잡한 각종 제물과 주문들, 그리고 장인이 신상의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사실을 부정하는 의식, 신상이 인간이 아닌 신적인 출생과 기원을 갖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 등을 통하여 완전한 신이 된다.

5. 구약성서에 나타난 신상

앞에서 보았듯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공적인 제의의 중심은 곧 신상이었으며, 그 신상을 중심으로 한 제의의 성격은 바로 신상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었다. 이는 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혹시 있을지 모를 신의 진노를 예방하고 신의 가호를 기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절차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떠했을까? 주변 세계의 종교와의 신학적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던 신명기 역사가의 시대인 기원전 7-6세기 이후라면 모르겠으나, 그보다 이전인 초기 이스라엘의 종교에서는 주변 문화와 유사한 또는 공유된 신상에 대한 개념이나 신을 섬기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앞에서 보았듯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상은 타마리스크(tamarisk)와 같은 귀한 목재, 금, 은, 보석류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특히 제2이사야는 신상의 제작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사야 40-44장에 걸쳐서 우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한다.¹⁶⁾ 예레미야 역시 신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꾸며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¹⁷⁾

12) William W. Hallo, "Texts, Statues and the Cult of the Divine King," *Vetus Testamentum* 40 (1988), 54-66.

13) A. Leo Oppenheim, *유허*, 184.

14) Edward M. Curtis, "Images in Mesopotamia and the Bible: A Comparative Study," in William W. Hallo, Bruce W. Jones, and Gerald L. Mattingly (eds.), *The Bible in the Light of Cuneiform Literature: Scripture in Context III*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1990), 43.

15) 메소포타미아의 입을 여는 의식은 일반적으로 입을 씻는 것을 의미하는 미스피(*mis-pi*)로 불리곤 하는데, 여기에는 입을 여는 것을 가리키는 피피(*pit-pi*)의 과정도 포함된다. 메소포타미아의 입을 여는 의식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라. Thorkild Jacobsen, "The Graven Image," in Patrick D. Miller, Paul D. Hanson, and S. Dean McBride (eds.), *Ancient Israelite Religion: Essays in Honor of Frank Moore Cros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7), 15-32; Angelika Berlejung, "Washing the Mouth: The Consecration of Divine Images in Mesopotamia," in Karel van der Toorn (ed.), *The Image and the Book: Iconic Cults, Aniconism, and the Rise of Book Religion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Leuven: Peeters, 1997), 45-72; Christopher Walker and Michael B. Dick, "The Induction of the Cult Image in Ancient Mesopotamia: The Mesopotamian *mis-pi* Ritual," in Michael B. Dick (ed.), *Born in Heaven, Made on Earth: The Making of the Cult Image in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9), 55-121; Idem, *The Induction of the Cult Image in Ancient Mesopotamia: The Mesopotamian Mis Pi Ritual* (Helsinki: The University of Helsinki, 2001).

16)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사 40:19);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메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땀집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사 41:7)

17)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니니 ……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

제2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말하는 신상을 만드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니면 이방 사람인가? 예레미야는 우상을 만드는 행위를 ‘여러 나라의 풍습’(10:3)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행위가 흔치 않은 일이 아님을 증언해 준다(왕상 14:9, 15:12; 시 115:4, 115:8, 135:15-18; 사 30:22, 31:7; 겔 16:17-18, 21; 호 8:4-6, 13:2-3).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 초기뿐 아니라 포로기 전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세계와 마찬가지로 신들을 신상으로 만들어 숭배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곤 했다는 신상이 과연 야훼 하나님의 신상이냐, 아니면 이방신들의 신상이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구절이 하나 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사 10:10-11). 아시리아 왕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이 구절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종교가 다른 열방의 종교와 별 다르게 여겨지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신상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¹⁸⁾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도와 그 신상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신상은 중앙 성소의 제의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방신들의 신상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상이었을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쿤틸렛 아즈루드에서 발견된 그

림 및 명문과 키르벳 엘콤 명문에 나타난 ‘사마리아의 야훼’의 신상, 그리고 예루살렘 신전에 안치되어 있었을 지도 모를 야훼의 신상과 연결지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¹⁹⁾

실제로 사마리아에 야훼 하나님의 신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사르곤 2세의 니므루드 프리즘(Nimrud Prism)에는 그가 사메리나 사람들이 “신뢰하던 신들을 전리품으로 챙겼다”는 기록이 있다.²⁰⁾

사메리나(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므로 사마리아에 있던 신상은 물론 야훼의 신상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야훼의 신상이 있었다면, 유다의 예루살렘에도 야훼의 신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운 것은 남왕국 솔로몬 신전의 야훼(신상?)에 상응하는 예배의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솔로몬 신전에 야훼 신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보자.

(1) 고대 근동 세계에서 신전은 ‘신의 집’으로 불렸다. 이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솔로몬 신전의 별칭 역시 ‘여호와와 그의 집’이었다(시 23:6, 27:4, 92:13, 135:2 등). 솔로몬의 신전 봉헌에 분명히 나타나듯이 신명기 역사가는 하나님의 거주처를 신전이 아닌 하늘로 만들었지만(왕상 8:22-53), 이는 솔로몬 신전이 멸망하고 난 이후 신상을 둘 지상의 신전이 없어진 현실에 대한 후대의 신학적 응답을 반영하는

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렘 10:3-4, 9)

18) 비평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후대의 첨가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이 후대의 첨가이든 아니든 이사야 자신의 증언이든 본 주제를 다루는 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George B. Gra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Isaiah*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2), 198; Brevard S. Childs, *Isaiah: A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92.

19) 쿤틸렛 아즈루드 명문의 그림에 대한 해석은 강승일, “야훼 하나님의 아내?”, 『구약논단』 제40집(2011년 6월), 123-144을 보라.

20) “나에게 맞선 왕에게 동의하여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아슈루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전쟁을 하기로 모의한 사메리나의 거민들, 내가 나의 주들, 위대한 신들의 힘으로 그들과 싸워서 27,280명의 사람과 그들의 전차들, 그들이 신뢰하던 신들을 전리품으로 챙겼다.” K. Lawson Younger, Jr., “Nimrud Prisms D & E (2.118D),” in William W. Hallo (ed.), *The Context of Scripture: Vol. 2 Monumental Inscriptions from the Biblical World* (Leiden: Brill, 2003), 295.

것이다. 만일 솔로몬 신전에 하나님의 신상이 없었다면 어떻게 신전을 “여호와와 그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었겠는가?

(2)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야훼의 여러 별명들 중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 있다(삼상 4:4, 삼하 6:2, 왕하 19:15, 사 37:16, 시 80:1, 99:1). 이 별명은 솔로몬 신전의 지성소 안의 두 그룹 사이에 야훼의 신상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페니키아 비블로스의 왕 아히람의 석관 옆에 새겨진 그림과 비교해 보면, 아히람이 상자처럼 생긴 발받침을 밟고 그룹 사이에 앉아 있는 모습은 솔로몬 신전 지성소에 야훼의 신상이 그룹 사이에 앉아서 언약궤를 발등상 삼아 안치된 그림을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언약궤가 야훼 신상의 발등상 기능을 했다는 것은 “여호와와 그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대상 28:2)이라는 성경의 증언과 하나님의 보좌에 발등상이 있었다고 알려주는 시편 99: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3) 여러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얼굴을 본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²¹⁾ 예를 들어, 시편 17장 15절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꺾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표현이며, 더군다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외에도 시편 42편 3절, 민수기 12장 8절, 특히 시편 63편 2절은 신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능했음을 암시하고 있다.²²⁾

21) Mark S. Smith, “Seeing God’ in the Psalms: The Background to the Beatific Vision in the Hebrew Bibl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0 (1988), 171-83.

22)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와 형상을 보거늘(민 12:8a);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시 42:3);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시 63:2).

(4) 예루살렘 신전이 멸망하기 이전의 예언자들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다. 미가야 예언자에 의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좌에 앉아계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다(왕상 22:19). 특히 너무 유명한 장면이라서 굳이 여기에 인용하지 않아도 될 이사야 6장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신전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들 예언자들은 어떻게 보았던 것일까? 아마도 이들은 신전의 지성소에 놓인 거대한 보좌 위에 안치된 야훼 하나님의 신상을 보았을 것이다.

(5)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상으로 나타난 신은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신다. 구약성경을 보면, 이와 유사한 신상의 개념이 야훼 하나님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레 3:11, 16, 21:6, 8, 17, 21)이라고 되어 있다. 아론은 하루에 두 번씩 야훼 하나님께 향을 피워야 했는데, 분향되는 향과 함께 번제물에서 나는 고기가 타는 냄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냄새”(출 29:18)라고 한다. 신전 안에 놓여 있는 진설병, 즉 빵과 음료는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다.

신명기 4장 28절은 이방신들을 가리켜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이라고 말한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고, 듣고, 먹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신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²³⁾

이와 관련하여 시편 50편 13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를 피를 마시겠느냐.” 시편 기자가 뜬금없이 하

23) 하나님의 음식에 대하여는 S.-J. Kim, “La nourriture de Dieu(יהוה אלהים) dans le Code de saintet”, *ZAW* 123(2011), 424-430을 참조하라.

나눔이 제사물을 음식으로 먹고, 피를 마신다는 개념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퍼져있었음을 반증한다.

야훼 하나님은 음식만 먹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고대 근동 세계의 신상들처럼 옷을 입고 있었던 듯하다. 이사야는 신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에 의하면 하나님에게는 “옷자락”(사 6:1)이 있었다. 또한 다니엘이 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단 7:9).²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에봇은 본래 신상을 입히는 의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²⁵⁾ 이러한 인식과 표현은 중앙 성소에 야훼 하나님의 신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는 생겨나기 어려운 것이다.²⁶⁾

물론, 예루살렘 신전에 야훼 하나님의 신상이 존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근거들도 있다.²⁷⁾ 느부갓네살이 신전의 모든 보화를 가져갔지만 그것들 중에 야훼의 신상에 대한 언급은 구약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왕하 25:13-17).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기록에도 신상을 가져갔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신전에 야훼의 신상이 있었다면 신상을 만들고 먹이고 입히는 의식과 관련된 제의 문서가 남아 있지 않다는

24) Herbert Niehr, "In Search of YHWH's Cult Statue in the First Temple," in K. van der Toorn (ed.), *The Image and the Book: Iconic Cults, Aniconism, and the Rise of Book Religion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Leuven: Uitgeverij Peeters, 1997), 89.

25) 강승일, "우림과 돌림, 에봇, 그리고 언약궤 - 제사장의 점술 도구들" 『구약논단』44 (2012, 6), 120-123을 참조하라.

26) 고고학적으로 보면, 분명한 철기 시대 이스라엘 컨텍스트에 속한 남자 신을 나타내는 신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William G. Dever, "Material Remains and the Cult in Ancient Israel: An Essay in Archaeological Systematics," in Carol L. Meyers and M. O'Connor (eds.),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Noel Freedman in Celebration of His Sixtieth Birthday*, 574.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신전 제의에서 사용된 신상으로 확실시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이러한 신상들은 귀한 재료로 만들어져서 대부분 후대에 재활용되거나, 도난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고학적 증거가 안 나타난다는 것을 근거로 이스라엘에 야훼 신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로부터의 증거'로서 그 논증 방식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신상이 오늘날까지 보존되기 어려운 역사적 정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27) Theodore J. Lewis, "Syro-Palestinian Iconography and Divine Images," in Neal H. Walls (ed.), *Cult Image and Divine Representation in the Ancient Near East* (Boston: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005), 103-104.

것도 문제다. 특히 하나님의 신상이 실재 존재한다면 어떻게 성경이 말하듯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반론들은 대부분 성경 본문의 생산과 편집을 담당했던 이스라엘 신학자들이 야훼 신상의 존재나 또는 그에 관한 기록들을 억누르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이 가능하다. 신상과 관련된 제의 문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상에 반대하는 후대의 성경의 편집자들이 그러한 문서를 성경에 그대로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루이스는 바빌로니아 연대기에 느부갓네살이 야훼의 신상을 가져갔다는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 기록에 만일 노략물 목록 같은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도 신상이 그 목록에 없다면 이것은 정말 신상이 없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연대기는 왕들의 사적을 간략히 언급하고 지나가는 성격의 문서이며, 거기에는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노략물 목록 같은 것은 없고 그가 단순히 "자신이 선택한 왕을 유다에 세우고 조공을 받은 후에 바빌론으로 돌아갔다"는 짧은 기록만 있다.²⁸⁾ 그러므로 루이스의 지적도 신상에 대한 적절한 반대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혹자는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라는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명령을 근거로 야훼의 신상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오히려 쿤틸렛 아즈루드의 명문과 같이 하나님을 그림이나 형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중앙 성소에 야훼의 신상이 있는 상황에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필자의 판단으로

28) Alan Millard, "The Babylonian Chronicle (1.137)," in William W. Hallo (ed.), *The Context of Scripture: Vol. 1 Canonical Compositions from the Biblical World* (Leiden: Brill, 2003), 467-468.

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지 말라는 명령은 지방 산당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예루살렘 중심의 제사장이나 신학자들은 야훼 하나님이 각 지방마다 특수한 형태와 특징을 지닌 채로 섬겨지는 현상을 경계하고 있었다. 이는 신명기와 신명기계 역사서 기자가 예배를 오직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드리자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배경이 된다. 실제로 쿤틸렛 아즈루드 등의 명문에 언급된 ‘사마리아의 야훼’와 ‘데만의 야훼’, 예루살렘에서 섬겨지던 ‘시온의 야훼’(יהוה בציון), 아도나이 브치윤, 시 99:2), 그리고 헤브론의 야훼(삼하 15:7)²⁹⁾ 등의 명칭들은 야훼 예배가 각 지역에서 특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명기의 쉼마 구절도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다.³⁰⁾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되 하나님만 섬길 것을 주장하는 단일신론적 개념(신 5:7, 6:14, 7:4, 8:19, 11:16, 25 등)을 갖고 있는 신명기 저자의 신학을 고려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6:4)라는 유명한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신은 야훼 밖에 없다는 유일신론적 선언문이 아니다. 오히려 각 지방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야훼 예배를 예루살렘 중앙 성소의 제의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각 지방의 성소들도 중앙 신전처럼 야훼의 신상을 만들어 내서 종교적 분권화를 이루려는 시도를 제어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6. 구약성서에 나타난 입을 여는 의식

그렇다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상 제작 후에 신상을 살아있

29) 이에 대하여는 도널드 레드포드 외, 「유일신 신앙의 여러 모습들」(강승일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84-85; 강승일, “야훼 하나님의 아내?”, 「구약논단」, 제40집(2011년 6월), 126 각주 7을 참고하라.

30) 신명기의 쉼마에 나타나는 사랑의 개념에 대하여는 최중원, “신명기의 ‘사랑과 계약’에 대한 새로운 연구”, 「구약논단」, 제52집(2014년 6월), 42-72를 참조하라.

는 신으로 만드는 절차인 입을 여는 의식이 과연 이스라엘에서도 행해졌을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구약성서의 기록에 신상의 입을 여는 의식, 또는 개구(開口)의 식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서 곳곳에는 고대 근동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입을 여는 의식의 흔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만한 구절들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다.

1) 시편 51편

이 시에는 고대 근동의 입을 여는 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 여럿 등장한다. 우루티아(B. Urrutia)는 “씻으시며…… 깨끗이 제하소서”(2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7절),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8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15절) 등의 표현들이 이집트의 입을 여는 의식에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시편 51편은 이집트의 입을 여는 의식의 문화적 확산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³¹⁾ 우루티아의 글은 매우 짧고 이집트 문헌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서 그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편 51편과 이집트의 입을 여는 의식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하나의 단서가 존재한다. 개역개정판 성경에 ‘중심’(51:6)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טוּחַט (투훗/중심)은 욥기 38장 36절에서 이집트의 신 토트(Thoth)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³²⁾ 토트는 대표적인

31) Benjamin Urrutia, *유클*, 222223.

32) Marvin H. Pope, *Job: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15; Garden City, NY: Doubleday, 1982), 302. 이를 근거로 다후드(Dahood)는 טוּחַט (투훗)을 토트, 즉 ‘영리한 마음을 가진 자’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아 ‘영리함(cleverness)’으로 번역한다. Mitchell Dahood, *Psalms II 51-10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17; Garden City, NY: Doubleday, 1968), 4.

지혜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51편 6절 하반절에 טוהת (투훗)에 병행하는 단어로 지혜를 의미하는 חכמה (호크마/지혜)가 나타난다는 점은 상반절의 טוהת (투훗)이 토트와 기원적으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중왕국 시대 이후로 토트가 프타와 함께 입을 여는 의식의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신왕국 사자의 서(The Book of the Dead) 23장에서 프타는 죽은 사람이 사는 도시의 주신과 함께 입을 여는 역할을 하고, 토트는 그 옆에 서서 주문을 갖추고 있다.³³⁾

이 역시 시편 51편과 이집트의 입을 여는 의식과의 연관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16-19절에는 ‘제사, 번제’와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이 시가 제의적 맥락에서 지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³⁴⁾ 비록 확증할 수는 없지만, 만일 구약성서에 이집트의 입을 여는 의식과 관련된 제의 문헌의 흔적이 있다면 시편 51편이 그 후보가 될 것이다.

2) 이사야 6장

이사야의 소명 사건을 보고하는 이사야 6장과 메소포타미아의 입을 씻는 의식 사이의 연관성도 제기되었다. 메소포타미아의 미스피(mis-pî), 즉 입을 씻는 의식은 장인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신상으로부터 인간의 손의 흔적을 제거하는 의식으로, 핏피(pit-pî), 즉 입을 여는 의식을 하기 전날에 행하여진다. 성전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33) “아니(Ani)의 입을 여는 주문. 내 입은 프타에 의하여 열리고, 내 입에 있는 것은 내 지역의 신에 의하여 풀렸다. 주술로 가득차서 준비된 토트(Thoth)가 진실로 오고, 내 입을 제약했던 세트(Seth)의 결박이 풀렸다. 아툼이 그것들을 막아 내고 세트의 제약을 몰아냈다. 내 입이 열리고, 내 입이 슈(Shu)에 의하여 신들의 입을 열었던 그의 철 작살로 갈라져 열렸다.” Raymond Faulkner, (tr.), *The Egyptian Book of the Dead: The Book of Going Forth by Day* (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1998), plate 15.

34) Marvin E. Tate, *Psalms 51-100* (Word Biblical Commentary 20;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8)의 시 51편 해설을 참조하라. 그는 시 51편이 제사장에 의해 집행되는 치료와 회복의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서 예언자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다”(6:5). 그러나 곧 이어 스랍은 솟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서 죄를 씻어 준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적절한 정화 의식을 통과하지 않은 점술가나 죄인은 신들의 재판정 앞에 설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입을 씻는 행위는 그가 신들의 의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준비 과정의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후로비츠는 다른 성경의 예언자들의 경우에는 입을 씻는 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기 전에 그발 강가나 티그리스 강변을 찾아간 것은 이러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³⁵⁾ 그리고 그러한 의식의 흔적이 바로 이사야의 입을 씻는 행위이고, 고대 근동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이러한 의식은 이스라엘 초기 예언 활동을 통해서, 또는 가나안의 풍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³⁶⁾

3) 제2이사야

예레미야와 함께 신상이 거짓임을 강조했던 예언자는 소위 제2이사야이다. 이사야 44장은 모든 우상은 헛것이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유일신 개념이 천명된 대표적인 본문이다. 여기에는 예레미야 10장과 같이 신상을 만드는 과정들이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제2이사야는 그 어떤 구약성경의 저자보다도 메소포타미아의 입을 여는 의식에 어느 정도 정통해 있던 사람이다. 14절에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라는 표현은 본래 신전 작업실에서 만들어진 신상을 강가

35) 에스겔서의 최근 연구사에 대하여는 임시영, “에스겔 연구사 - 역사적 발전의 경과와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53집(2014년 9월), 281-324를 보라.

36) Victor A. Hurowitz, *웃음*, 73-78.

로 가져다가 물을 주어 제의적으로 처음의 나무로 되돌아가 새로 태어나게 하는 미스피(mīs-pī) 의식의 한 과정을 반영한다는 볼 수 있다.³⁷⁾

또한 삼나무를 가리키는 오렌(/삼나무, 아카드어로는 에레누 erenu)과³⁸⁾ 무수칸(/나무의 일종?, 아카드어로 ‘수입된 나무’를 의미하는 무숙칸누 musukkannu와 관련)³⁹⁾과 같이 신상의 제작과 입을 여는 의식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목재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제2이사야는 바빌로니아의 입을 여는 의식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⁴⁰⁾

제2이사야는 또한 우상은 만든 장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고 조롱한다(사 44:18-19). 이는 입을 여는 의식을 거치기 이전의 신상이 아무런 감각과 지식과 행동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메소포타미아 입을 여는 의식의 기본 원리를 역으로 활용한 조롱이다.

특히 제2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사 44:14). 입을 여는 의식에서 신상을 만들 나무가 자라도록 물을 주는 신은 엔키이고 그 나무를 자르는 자는 신 닌일두(Ninildu)이다. 그러나 제2이사야는 나무는 비를 맞고 자라는 것이고 그 나무를 자르는 자는 신이 아니라 신상을 만드는 인간임을 분명히 하여 신상 제작 과정에서 신들이 개입한다는 입을 여는 의식의 기본 개념을 부정하고

있다.⁴¹⁾ 이 역시 제2이사야가 메소포타미아의 신상의 입을 여는 의식의 절차와 신학적 전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들을 역으로 이용하여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적 세계관을 철저히 반박하며 조롱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4) 예레미야

메소포타미아에서 입을 여는 의식 이전에 신상을 제작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예레미야 10장이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례적으로 신상을 만드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한다. 우선 기술공이 도끼로 삼림에서 나무를 베어 신상의 중심 몸통을 만든다(3절). 나무로 된 몸통 위에 은장색이 은과 금을 덧입혀 꾸민다(4절). 이렇게 만들어진 신상을 못과 장도리로 받침에 단단히 고정시킨다(4절). 마지막 단계는 이 신상에 청색 자색 옷을 입히는 것이다(9절).⁴²⁾

이러한 신상 제작 과정은 메소포타미아의 입을 여는 의식과 관련된 문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⁴³⁾ 특히 메소포타미아 입을 여는 의식의 주문에 신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이 신상은 그 입이 열리지 않고는 향을 맡을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다.”⁴⁴⁾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도 예레미야는 신상에 대하여 “말도 못하며 걸어도 다니지도 못하므로”(10:5)라고 조롱한다. 예레미야뿐 아니라 시편 115편과 135편의 기자들도 위의 입을 여는 의식의 문구를 그

37) Michael B. Dick, “Prophetic Parodies of Making the Cult Image,” in Michael B. Dick (ed.), *Born in Heaven, Made on Earth: The Making of the Cult Image in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9), 26.

38) 타마리스크 나무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삼나무는 입을 여는 의식에 사용되는 목재 중의 하나이다. Christopher Walker and Michael B. Dick, *윳글* (1999), 85.

39) “musukkannu”,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M Part 2, 237.

40) Michael B. Dick, “Worshipping Idols: What Isaiah Didn't Know,” *Bible Review* 18 (2002), 30–37.

41) Catherine L. Beckerleg, “The ‘Image of God’ in Eden: The Creation of Mankind in Genesis 2:5–3:24 in Light of the *mis pi-pit pi-and wpt-r* Rituals of Mesopotamia and Ancient Egypt,” (Ph.D. diss. Harvard University, 2009), 10–13을 참조하라.

42) Michael B. Dick, *윳글* (1999), 17–18.

43) Christopher Walker and Michael B. Dick, *윳글* (2001), 138–141, 150–151.

44) Christopher Walker and Michael B. Dick, *윳글* (1999), 99.

대로 인용하는 듯한 내용을 말한다.⁴⁵⁾

바빌로니아 판의 입을 여는 의식에서는 신상을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부정하고 제사장은 타마리스크 나무로 만든 칼로 신상을 만든 장인의 손목을 상징적으로 잘라 내는 의식을 거행한다.⁴⁶⁾ 그러나 마치 이를 반박하듯 예레미야는 신상을 가리켜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10:3b)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신상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신 분이라고 선언한다(10:12). 결국 예레미야는 메소포타미아의 입을 여는 의식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의식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들의 신상은 가짜임을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7. 결론

지금까지 성경의 증언들과 고고학적 자료들 및 역사기록을 바탕으로 고대 이스라엘에 야훼 하나님의 신상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아마도 야훼 신상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내용들은 성경의 저자들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거나, 또는 후대의 편집자들에 의하여 삭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의 신상이 존재했음을 전제로 한 개념들과 표현들, 예언자들의 체험 등 다각도의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예루살렘 신전에도 거대한 하나님의 신상이

45)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시 115:4-7);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시 135:15-17).

46) Christopher Walker and Michael B. Dick, *윳골* (1999), 81-83.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널리 행해지던 신상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제의인 입을 여는 의식의 흔적이 구약성경 일부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 사실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변 세계와 마찬가지로 입을 여는 의식을 직접 행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입을 여는 의식의 절차와 내용을 담은 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예레미야와 제2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은 바빌로니아의 입을 여는 의식의 내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이 지식을 우상의 허망함을 조롱하고 야훼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선포하는 데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대 이스라엘 종교 연구에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고대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소위 ‘무형상주의’ 또는 ‘반형상주의’를 야훼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꼽는데, 본 논문은 적어도 초기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은 그러한 특징을 지니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⁴⁷⁾ 그렇다면 본 논문은 필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야훼 종교의 반형상주의적 특징이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기원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게 되었는가’하는 중요한 질문을 풀어나가는 데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 초기의 야훼 신앙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주변 종교와 불연속성보다는 연속성을 더 많이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차원에서 더 많은 이스라엘 종교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47) 반형상주의에 대한 간단한 논의는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의 민간종교 연구”, 『구약논단』 제8집(2000년 6월), 164-166을 참조하라.

8. 참고문헌

- 강승일, “야훼 하나님의 아내?”, 「구약논단」 제40집(2011년 6월), 123-144
- _____, “우림과 돛뭍, 에봇, 그리고 언약궤 - 제사장의 점술 도구들”, 「구약논단」 제44집(2012년 6월), 120-123.
- 임시영, “에스겔 연구사 - 역사적 발전의 경과와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53집(2014년 9월), 281-324.
-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의 민간종교 연구”, 「구약논단」 제8집(2000년 6월), 151-174.
- 최종원, “신명기의 ‘사랑과 계약’에 대한 새로운 연구”, 「구약논단」 제52집(2014년 6월), 42-72
- Assmann, Jan, *The Search for God in Ancient Egyp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 Beckerleg, Catherine L., “The ‘Image of God’ in Eden: The Creation of Mankind in Genesis 2:5-3:24 in Light of the *mīs pī pīt pī* and *wpt-r* Rituals of Mesopotamia and Ancient Egypt,” (Ph.D. diss. Harvard University, 2009).
- Berlejung, Angelika, “Washing the Mouth: The Consecration of Divine Images in Mesopotamia”, K. van der Toorn(ed.), *The Image and the Book: Iconic Cults, Aniconism, and the Rise of Book Religion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Leuven: Peeters, 1997), 45-72.
- Childs, Brevard S., *Isaiah: A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Dick, Michael B., “Prophetic Parodies of Making the Cult Image”, Michael B. Dick(ed.), *Born in Heaven, Made on Earth: The Making of the Cult Image in the Ancient Near East* (Winoona Lake, IN: Eisenbrauns, 1999), 1-53.
- _____, “Worshipping Idols: What Isaiah Didn’t Know”, *Bible Review* 18 (2002), 30-37.
- Glazov, Gregory, *The Bridling of the Tongue and the Opening of the Mouth in Biblical Prophec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 Hallo, William W., “Texts, Statues and the Cult of the Divine King”, *Vetus Testamentum* 40 (1988), 54-66.
- Hurowitz, Victor A., “Isaiah’s Impure Lips and Their Purification in Light of Akkadian Sources”, *Hebrew Union College Annual* 60 (1990), 39-89.
- Jacobsen, Thorkild, “The Graven Image”, Patrick D. Miller, et al.(eds), *Ancient Israelite Religion: Essays in Honor of Frank Moore Cros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7), 15-32.
- Lewis, Theodore J., “Syro-Palestinian Iconography and Divine Images”, Neal H. Walls(ed.), *Cult Image and Divine Representation in the Ancient Near East* (Boston: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005), 69-107.
- Lundberg, Marilyn J., “The Mis-Pi Rituals and Incantations and Jeremiah 10:1-16”, John Goldingay(ed.), *Uprooting and Planting: Essays on Jeremiah for Leslie Allen* (New York: T & T Clark, 2007), 210-227.
- Niehr, Herbert, “In Search of YHWH’s Cult Statue in the First Temple”, K. van der Toorn(ed.), *The Image and the Book:*

Iconic Cults, Aniconism, and the Rise of Book Religion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Leuven: Uitgeverij Peeters, 1997), 73-95.

Oppenheim, A. Leo, *Ancient Mesopotamia: Portrait of a Dead Civiliz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Pope, Marvin H., *Job: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15; Garden City, NY: Doubleday, 1982).

Robins, Gay, "Cult Statues in Ancient Egypt", Neal H. Walls(ed.), *Cult Image and Divine Representation in the Ancient Near East* (Boston: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005), 1-12.

Roth, Ann M., "The *Psš-ḳf* and the 'Opening of the Mouth' Ceremony: A Ritual of Birth and Rebirth",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78 (1992), 113-147.

_____, "Fingers, Stars, and the Opening of the Mouth: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Nṯrwj* Blades",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79 (1993), 57-79.

Smith, Mark S., "'Seeing God' in the Psalms: The Background to the Beatific Vision in the Hebrew Bibl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0 (1988), 171-83.

Urrutia, Benjamin, "Psalm 51 and the 'Opening of the Mouth' Ceremony", *Scripta Hierosolymitana*, Volume 28 (Jerusalem: Magnes Press, 1982), 222-223.

Walker, Christopher and Michael B. Dick, "The Induction of the Cult Image in Ancient Mesopotamia: The Mesopotamian *mīs-pî* Ritual", Michael B. Dick(ed.), *Born in Heaven, Made on Earth: The Making of the Cult Image in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9), 55-121.

_____, *The Induction of the Cult Image in Ancient Mesopotamia: The Mesopotamian *Mīs Pî* PRitual* (Helsinki: The University of Helsinki, 2001).

검색어

신상

입을 여는 의식

제2이사야

반형상주의

시51편

The Cult Statue and the Ritual of the Opening of the Mouth in the Old Testament

Seung-Il Kang, Ph.D.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Hannam University

The central aspect of the religions of ancient Mesopotamia and Egypt was the care and feeding of the gods. However, the problem was how

to care for and feed the invisible deities. To solve this problem, the ancient people manufactured cult statues made of wood, covered with gold, silver, and other precious materials, and clothed and fed them as if they were real gods. Thus the so-called ritual of the Opening of the Mouth, which the cult statue underwent so that it was designed to be animated, was established as the most important ritual connected with the cult statue.

This study briefly surveys the Opening of the Mouth ritual in Egypt and Mesopotamia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YHWH's cult statue in ancient Israel. The in-depth analysis of biblic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as well as historical references would reveal that there was probably YHWH's great cult statue in the Temple of Solomon.

In addition, it is shown that some prophets like Jeremiah and the Second Isaiah were acquainted with the procedures of the ritual as practiced in Egypt and Mesopotamia, and they pronounced the supremacy of YHWH even by utilizing such knowledge in their own polemics against idol wor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Yahwistic cult may have not been aniconic or anti-iconic, at least in its incipient stage, which should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anti-iconic tendency of the religion of Israel.

Keywords

cult statue
the ritual of the Opening of the Mouth
the Second Isaiah
anti-iconism
Psalm 51

- 투고일: 2015년 07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7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8월 06일